



"바람결에 날려 왔나 떼구름에 싸여 왔나"

뜻: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이나 물건이 갑자기 짠! 하고 나타났을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기대 · 우연 · 놀라움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바	람	결	에	↓	날	려	↓	왔	나
떼	구	름	에	↓	싸	여	↓	왔	나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바	람	결	에	↓	날	려	↓	왔	나
떼	구	름	에	↓	싸	여	↓	왔	나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바르거오] [나르] [오르] [따르거오] [싸오] [오나]

웹에서 보기

